
제2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2023 ~ 2027]

2023. 1



해양수산부

순 서

I . 계획의 개요	1
II . 크루즈산업 현황 및 동향	4
III . 비전 및 추진 전략	8
IV . 세부 추진계획	10
1. 찾아오는 크루즈	10
2. 즐겨타는 크루즈	16
3. 함께하는 크루즈	21
V . 추진일정	25

I 계획의 개요

1 수립 배경

- 크루즈산업은 지난 '19년까지 10년간 연평균 5.3% 수준으로 성장 (관광객 수 기준)하면서 성장산업으로써 입지를 공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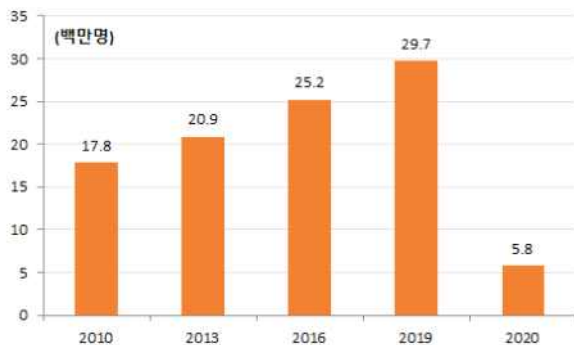
* (크루즈 관광객 수) ('10) 1,780만명 → ('15) 2,230만명 → ('19) 2,970만명

- 하지만, 업계·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운항 중단 등으로 크루즈산업은 급격히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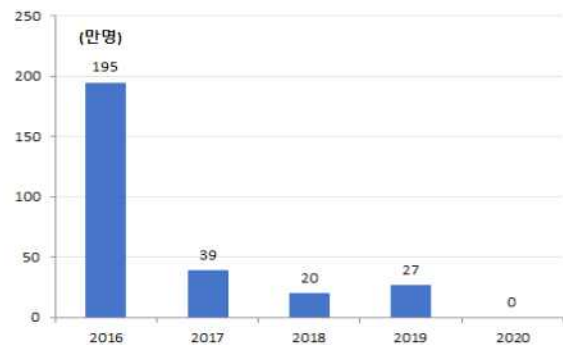
* '20년 전세계 크루즈 관광객이 3,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제로는 18.1% 수준인 580만명에 불과(세계크루즈선사협회(CLIA))

- 한한령('17) 이후 노선 다변화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던 국내 크루즈산업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근까지 사실상 정지* 상태

* 중수본의 방역강화 조치로 관광목적 외국적 크루즈선은 국내항 입항 불가('20.2~'22.5)



< 크루즈 관광객 추이 >



< 방한 크루즈 관광객 추이 >

- 최근, 크루즈선사의 감염병 대응 프로토콜 확립 및 세계 각국의 방역정책 완화로 약 90%에 달하는 크루즈선이 운항 재개

* (운항선박) 14척('21.2) → 140척('21.7) → 242척('22.1) → 381척('21.7) → 388척('21.9)

- 또한, 우리나라 크루즈선 운항 정상화('22.10.24)에 따라 국내 크루즈 산업 리부팅 및 재도약을 위한 향후 5년간의 계획 마련 필요

2

계획의 근거 및 범위

- (법적 근거)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크루즈 산업법」)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으로 크루즈산업의 체계적·효율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목표 제시

제5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시간적 범위) 2023년 ~ 2027년(5년)
- (내용적 범위)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방향, 크루즈 관광 기항확대 및 국내 수요 확보, 국제협력 강화 방안 등 정책과제

- 크루즈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크루즈산업의 경쟁력 강화
-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 국가 간 크루즈산업의 협력
-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제1차 기본계획 성과와 반성

- 주요성과
 - (관광객 유치) 기항지 마케팅 등을 통해 '16년에는 중국인 여행객을 중심으로 195만명의 관광객 유치
 - 중국의 한한령('17) 이후 한-대만 항로* 신설('17), 아시아 크루즈협의체** (ACC) 가입('17.10) 등을 통해 항로다변화 노력
 - * (운영실적) ('17) 1항차(3천명) → ('18) 4항차(11천명) → ('19) 17항차(40천명)
 - ** 한국, 대만, 홍콩, 필리핀, 중국(해남, 샤먼) 등 6개 회원이 공동 포트세일 추진

- (국내수요 확대) 크루즈 체험단* 운영(5회) 및 방송 홍보('17~, 지상파 생활정보·예능프로그램 등) 등을 통해 국내 크루즈 저변 확대*

* (운영실적) ('16) 78명 → ('17) 100명 → ('18.上) 100명 → ('18.下) 100명 → ('19.) 120명

** (국내 모항 관광객) ('16) 3.2만명 → ('17) 3.9만명 → ('18) 4.4만명 → ('19) 4.9만명

- (기항지 여건 개선) 접안 부두(8선석→13선석), 여객터미널(6개소→7개소) 등 인프라 확충*으로 크루즈선 접안능력 및 여행객 수용능력 개선

* (주요실적) 속초항 부두 접안시설 보강('17.11), 부산 동삼동 부두 확충('18.9), 인천 남항 부두 확충('18.10), 인천 크루즈 터미널 개장('19.4) 등

- (연관산업 활성화) 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터 건립('19, 제주), 크루즈 승무원 양성사업* 추진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관산업 지원

* (양성(명)/취업(명)) ('16) 118/87 → ('17) 106/77 → ('18) 130/103 → ('19) 107/63 → ('20) 97/88

- (국제교류 활성화) 제주국제크루즈포럼* 행사 개최로 아시아 크루즈 비즈니스 장을 마련하여 국내 크루즈 산업 활성화 도모

* 관계부처, 지자체, 국내외 관련 업계·학계가 참여하여 컨퍼런스 진행, 기자재 비즈니스 설명회, 승무원 취업설명회 등 연계 행사 진행('20, 21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 한계 및 반성

- (환경변화 대처 미흡) 특정국가* 및 인바운드**에 편중된 사업 운영으로 한한령, 코로나19 확산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 미흡

* 한한령 직전 5년간('12~'16) 우리나라 입항 크루즈선의 76%가 중국발, 방한 크루즈 여행객의 86%가 중국인

** 체험단 및 방송홍보를 통한 지속적인 국내 저변 확대에도 불구하고, '19년 기준 방한 외국인 여행객(27만명)에 비해 국내 크루즈 여행객(4.9만명)은 적은 수준

- 기항 선박 다양화, 기항지 매력 제고 등을 통한 여행객 다변화와 국내 저변확대, 제도·금융 지원 등을 통한 국적 크루즈 선사 육성 전략 필요

- (전문성 제고 필요) 코로나19 이후 급변이 예상되는 국내·외 크루즈 산업 동향 파악 및 발전전략 제언 등을 위한 전문 인력 필요

Ⅱ 크루즈산업 현황 및 동향

1 크루즈산업 현황

□ 시장구조

○ (시장규모) 코로나19 팬데믹 전 '19년 크루즈 이용객은 2,970만명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5.3% 수준으로 성장

- (지역별) 북미지역(51.9%)이 '19년 전체 크루즈 관광객*의 절반 이상 차지, 그 다음 유럽(26.0%), 아시아(12.6%) 순

* 북미 1,541만명, 유럽 771만명, 아시아 374만명, 중남미 135만명, 기타 149만명

** 주요 기항지도 지역별 시장규모를 반영, 카리브해, 지중해 등에 형성

○ (선사현황) 세계크루즈산업협회(CLIA) 회원사 기준, 상위 4개사*가 83.4% 점유율을 차지하는 과점 시장

* 카니발 코퍼레이션, 로열 캐리비안, MSC 크루즈, 노르웨지안 크루즈

□ 경제적 효과

○ '19년 크루즈산업이 전세계적으로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는 1,545억불, 117만개의 일자리를 통해 505억불의 급여 지출('21. CLIA)

* 코로나19로 인한 크루즈선 운항 중지로 6개월마다 60조원의 경제활동 손실, 33만 4천개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 크루즈 승객과 승무원은 기항지 관광, 승선 전·후 현지 관광 등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간접 소비 유발

* 승객들의 기항지 지출 금액은 약 100불이지만, 이들이 승선 전 또는 하선 후 모항지에서 지출한 금액은 1인당 385불에 달함('21. CLIA)

□ 아시아 시장

○ '19년 아시아 크루즈 여행객은 약 374만 명으로 전세계 크루즈 여행객의 12.6%를 차지

- 관광객*은 중국, 기항지**는 일본의 비중이 높으며, 단기간 관광과 국내 관광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남

* 중국(192만 명)이 아시아 여행객(374만 명)의 절반 이상 차지('19, CLIA)

** ('19기준) 일본(2,681회), 중국(809회), 말레이시아(561회), 한국(172회, 10위)

2 전세계 크루즈산업 동향

□ 선대규모 조정

- 글로벌 크루즈선사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후 소형선박의 매각 또는 폐선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 추진

* ('20년) 폐선(14척/21,000침상) 및 중고선 매각(24척) 모두 역대 최고 기록

- 선박 폐선에도 불구하고 既발주된 선박 인도에 따라 '21년 전체 크루즈 선대는 468척으로 '19년 대비 증가
- 선박 매각으로 초대형 선사의 선대는 감소한 반면, 이를 매입한 새로운 선사 출범, 니치마켓 선사들의 노후선박 대체 등 발생

< 코로나19 이후 크루즈 선사별 운항 선대 >

회사	'19.9월		'21.9월		증감	
	선박(척)	침상(개)	선박(척)	침상(개)	선박(척)	침상(개)
계	448	591,377	468	637,307	20	49,824
카니발 코퍼레이션	102	241,785	94	246,757	△8	8,866
로열 캐리비안	55	123,022	53	119,610	△2	△3,412
노르웨이안 크루즈	26	54,656	28	59,390	2	4,734
MSC 크루즈	16	48,505	19	63,951	3	15,446
TUI 크루즈	17	29,124	17	26,900	-	△2,224
기타	232	94,285	257	120,699	25	26,414

* (출처)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 선대 재배치

- 글로벌 선사들은 코로나19 이후 운항가능 여부 등 운항 편의를 고려하여 전 세계적인 선대 전환배치 진행 중

- 동북아 모항을 운영하던 선사*들은 동북아 시장의 높은 성장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운항가능 지역(북미, 동남아 등)으로 선박 전환 배치 중

* 프린세스 크루즈, 코스타 크루즈,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등

- 지역 최대 시장인 중국의 강력한 봉쇄정책, 전쟁에 따른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기항 불가 등으로 동북아 지역에 공급 공백 발생

< 권역별 크루즈선 공급 비중 >

(단위 : %)

구분	카리브해	지중해	아시아/태평양	유럽	알래스카	호주	남극	기타 (중동 남미 등)
2019	38.7	14.8	12.3	9.4	4.4	3.9	0.2	16.3
2021	30.4	20.4	4.8	5.2	0.0	2.6	7.4	29.1
2022.4	20.0	20.7	2.3	21.0	2.3	2.0	7.7	24.0

* (출처) Cruise Industry News

□ 크루즈선의 친환경화

- 크루즈선사들은 IMO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여 유해물질 배출량을 '30년까지 '08년 배출량의 60% 수준으로 감축 추진

- 카니발 코퍼레이션, MSC 크루즈 등 일부 선사는 한발 더 나아가 '50년까지 유해물질 배출 'net zero'를 추진 중

* (IMO 목표) '50년까지 유해물질 배출량 50% 감축

- 각 선사들은 유해물질 배출 감축을 위해 친환경 선박 확보에 노력 중이며 LNG 추진 크루즈선 신조 비중 증가 추세

< 연도별 크루즈선 발주 잔량 및 LNG 추진 선박 비율 >

진수(예정)년도	계(척)	LNG(척)	MDO(척)	LNG 비율(%)
계	131	26	105	19.8
2020	23	1	22	4.3
2021	24	2	22	8.3
2022	29	4	25	13.8
2023	22	5	17	22.7
2024	12	5	7	41.7
2025	12	6	6	50.0
2026	6	2	4	33.3
2027	3	1	2	33.3

* (출처)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 (시장현황) 글로벌 선사들의 동북아(일본, 중국, 대만) 배치 선박이 주로 기항하며, 전 세계 여러 지역을 순항하는 월드와이드 크루즈도 방문
 - 5개 주요 기항지(부산, 제주, 인천, 여수, 속초)간 기항횟수 격차가 심화되며, 한한령('17) 이후 크루즈 방문객이 부산에 집중*
 - * 한한령 이전 제주('16, 64%)가 기항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가 중국인 관광객 급감 후 부산에 집중('19, 65.5%)
- (이용객동향) 외부환경 변화('17 한한령, '20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 급감*
 - * ('16년) 195만 → ('17년) 39만 → ('18년) 20만 → ('19년) 27만 → ('20년 이후) 0
 - (아웃바운드) 내국인 관광 수요는 연간 4.9만 명으로 소득 대비 매우 낮으며, 우리나라를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의 빈도도 낮음*
 - * 국내항만 모항(준모항) 운항 현황 : '18년 18항차 약 16천명, '19년 24항차 약 36천명
 - ※ 총 GDP가 우리나라 약 1/3수준인 대만의 크루즈 관광객은 39만 명으로 우리나라 (4.4만명)의 약 9배('19, CLIA)
- (선사현황) 국적 크루즈선 운영선사는 부재하나 일부 선사가 카페리선 (2만톤급)을 활용, 부산-오사카 및 부산항 인근 크루즈상품 운항*
 - * 코로나19로 전면 운항 중단하였다 주말 연안(부산)크루즈를 시작('22.4)으로 운항 재개
 - 다만, 중고선 매입, 글로벌 선사와의 합작 등을 통한 국적 크루즈선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한 움직임은 지속 중
- (인프라) 입항 실적('19)이 있는 9개 항만 중 크루즈 전용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이 갖춰진 항만은 5개(부산, 제주, 인천, 여수, 속초)
 - 전용부두가 없는 항만(동해, 마산, 울산, 포항)은 여객·화물부두를 통해 크루즈선 입출항하며, 포항은 터미널 개발 중

1

크루즈산업 육성전략 도출을 위한 SWOT 분석

- 크루즈산업 육성전략 도출을 위해 외부환경(기회, 위협), 내부환경(장점, 약점)을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중점과제 도출
- 중점과제들을 토대로 이를 포괄하여 추진하기 위한 상위 개념의 전략을 도출

<p>외생 변수</p> <p>내생 변수</p>	<p>▶ Opportunities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크루즈 시장 성장 · 주변국의 풍부한 인구 · 글로벌 선사의 아시아 기항 확대 · 주변국의 크루즈 관광객 증가 · 해양환경 규제 강화 	<p>▶ Threats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선사의 선대 축소 및 기항지 변화 · 지정학적 리스크 · 주변국의 공격적 크루즈 유치
<p>▶ Strengths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들의 높은 관광 욕구 · 지리적 강점(중국-일본 중간 위치) · 지속적인 항만 인프라 확충 · 지자체의 크루즈 산업 관심 	<p>SO Strategies: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역내 크루즈상품 개발 - 친환경 인프라 등 수용태세 강화 - 모항 크루즈(차터, 테마) 확대 	<p>ST Strategies 강점을 가지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동해·환황해권 크루즈 협의체 신설 - 크루즈 국제협력 강화 - 크루즈 여행사 투자 유치
<p>▶ Weaknesses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내수시장 취약 · 크루즈 선사 부재 및 투자 부족 · 해운·항만 분야 중 크루즈에 대한 낮은 관심 · 크루즈 선박 금융 미흡 · 크루즈 연관산업 발전 지연 	<p>WO Strategies 약점을 보완하며 기회를 살리는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루즈 홍보 및 내수 확대 - 연안크루즈 기반조성 및 상품개발 - Fly & Cruise 여건 조성 - 크루즈산업 투자 보증 -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확대 - 크루즈 연관산업 육성 지원 	<p>WT Strategies 약점을 보완하며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항 크루즈선 다변화

비전

쉽게 접하고, 편하게 즐기는 일상 속의 크루즈 여행

목표

- 외국적 크루즈선 연 300항차 입항, 여행객 50만명
- 다양한 크루즈 상품 제공으로 국내 모항객 연 10만명
- 국적선사 출범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크루즈산업 생태계

3대 추진 전략

세부 추진 과제

① 찾아오는 크루즈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 ① 크루즈 운항 정상화 후속대책
- ② 크루즈선 기항 활성화
- ③ 기항지 매력 강화

② 즐겨타는 크루즈
[국내 저변 확대]

- ① 크루즈 상품 및 사업모델 개발
- ② 국적 크루즈선사 출범 지원
- ③ 적극적인 관심유발 및 이미지제고

③ 함께하는 크루즈
[산업 육성 체계화]

- ① 크루즈 연관산업 활성화
- ②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 ③ 산업 지원체계 정비

IV 세부 추진계획

1 찾아오는 크루즈

- ◆ 크루즈 운항 정상화('22.10)에 따른 후속대책 추진 및 기항 크루즈 다양화, 기항지 매력도 제고 등을 통한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강화

1. 크루즈 운항 정상화 후속대책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수본의 크루즈선 입항제한 조치('20.2) 이후 2년 8개월 만에 크루즈선 운항 정상화('22.10)
 - 크루즈선 입항 및 여행객 하선 관광 재개에 대비하여 부두·터미널·CIQ 등 크루즈 인프라 정비 및 관광 인프라 복구 필요
 - * 크루즈선 운항 정상화 발표('22.10)에도 불구하고 모객기간 등을 고려 시 실제 크루즈선 입항은 '23년 초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추진방안

① 원활한 운항 재개를 위한 인프라 정비

- 원활한 크루즈선 입항과 여행객 수속을 위해 부두·터미널* 시설 정비 및 CIQ 기능 복구**
 - * 동삼동(영도), 인천, 강정(서귀포)터미널 등은 크루즈선 운항 제한으로 장기간 폐쇄 중
 - ** 강화된 방역정책 지원을 위해 인력·시설 등이 공항 등으로 재배치 된 상황
- 크루즈 여행을 위한 관광콘텐츠 업데이트 및 가이드·관광버스 등 필수 관광인프라 복구(지자체 등)
 - * 외국적 크루즈선의 카보타지 회피, 선용품 공급 등 목적

② 출입국·검역 등 편의 제고

-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출입국(K-ETA), 검역(Q-code)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크루즈선 입항 및 여행객 편의 제고
 - * (예시) 탑승객 인적사항 등과 관련한 시스템과 연동하여 개개인의 입력부담 경감 등

2. 크루즈선 기항 활성화

□ 추진배경

- 한한령, 제로 코로나 정책 등을 계기로 중국발 크루즈선과 중국인 관광객 일변도의 국내 크루즈 관광시장은 한계 노출

< 방한 크루즈 관광객 추이 >

(단위 : 천명, 항차)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154 (144)	282 (226)	796 (414)	1,058 (461)	875 (415)	1,954 (791)	394 (236)	202 (131)	267 (165)
중국	97 (93)	177 (90)	689 (321)	930 (378)	748 (352)	1,810 (688)	237 (103)	0 (0)	0 (0)
중국 외	57 (51)	105 (136)	107 (93)	128 (83)	127 (63)	144 (103)	157 (133)	202 (131)	267 (165)

* (출처) 내부자료

- 지정학적 요인 등 외생변수에 기인한 산업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추진 필요

□ 추진방안

< 기항 크루즈선 다변화 추진방안 >



【 현재 : 동북아 일부 노선만 집중 】



【 향후 : 다양한 노선의 크루즈선 유치 】

① 동북아 지역 기반 크루즈선 운항 활성화

- (환동해권) 한-러-일 3국간 협의체*를 구성(~'25), 노선 개발 및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해 환동해권 크루즈의 상설 운항 추진

* (구성) 각국 중앙·지방정부, 한-러-일 지역 운항선사 등 / (운영) 연례회의

- (환황해권) 각 국 중앙·지방정부 간 지속적인 운항재개 협의를 통해 국내 파급효과가 큰 한-중노선 복원

- 크루즈 연합여행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한국-대만 노선 확대

* (대만) 선사별로 선사-여행사 간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며, 크루즈협회에서 총괄

② 새로운 기항 크루즈선 유치

- (Fly & Cruise) 북미·유럽 관광객의 방한 유도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Fly & Cruise* 유치체계 구축(~'24)

* (예시) 입국(인천공항) → 현지관광 → 크루즈선 승선 / 입국(크루즈선) → 현지관광 → 귀국(인천공항)

- 선사별로 특성(고객, 상품구성, 주요 고려사항 등)이 상이한 Fly & Cruise 유치를 위해 선사별 맞춤형 상품구성 및 마케팅 지원

< Fly & Cruise 운영선사 비교(예시) >

구분	Marella Cruises	Hapag Lloyd Cruise
주요고객	영국인(은퇴자(다수) 및 가족 단위)	독일어 사용자(독일인, 스위스인 등)
공항여건	非메이저 공항 (고객들이 복잡함을 피할 수 있는)	메이저 공항 (고객들에게 최고 수준을 제공)
기항지관광	편안함을 느끼는 여행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여행 (현지의 역사, 생활모습 등)
상품구성	7일 (공항 도착 후 바로 크루즈로 이동)	보통 14일 (공항 도착 후 길게는 1주일까지 관광 후 크루즈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 총 여행 일정은 더 길어질 수도 있음)
주요 고려사항	믿을 수 있는 시스템 (전세기 3편 슬롯 제공 가능한 공항, 공항에서 크루즈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동선 등)	독일어 통역, 최고의 관광 상품

- (북극항로) 북극항로 연계 노선*을 개발하고 선사·여행사 등 대상 홍보를 통해 북극항로 운항 크루즈선의 우리나라 기항 추진

* (예시) 우리나라(속초/부산)-러시아(캄차카)-미국(알래스카)-캐나다(유콘/누니트) 등

3. 기항지 매력 강화

□ 추진배경

- 크루즈선의 국내 기항은 부산·제주에 집중, 여타 기항지는 다양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외면*받고 있는 상황

* 최근 9년간(2011~2019) 입항 크루즈선 중 82.9%가 부산(32.1%), 제주(50.8%)에 집중

< 기항지별 크루즈선 입항 현황 >

(단위 : 항차)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144	226	414	461	415	791	236	131	165
부산	42	126	109	110	71	209	100	84	108
제주	69	80	185	242	285	507	98	20	29
인천	31	8	95	92	53	62	17	10	10
여수	-	11	17	13	1	1	2	3	5
속초	1	1	1	-	-	1	9	3	5
기타	1	-	7	4	5	11	10	11	8

* (출처) 내부자료

- 기항지별로 차별화된 상품 지속 개발 및 적극적인 홍보 필요
- 또한, 글로벌 크루즈 선사들의 친환경 정책에 대응,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으로 기항 편의성 및 친환경 기항지 이미지 제고 필요

□ 추진방안

① 기항지 관광상품 개발 고도화

- (콘텐츠개발) 주요 기항지별 크루즈 관광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여 선사·여행사 등에 제공(문체부, 지자체 등)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컬처**(k-pop, k-푸드, k-드라마 등)를 적극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

* (예시) 크루즈와 연계한 k-pop 콘서트, 팬미팅, k-푸드 체험행사 등

- 다양한 크루즈선 유치를 위해 선사별로 추구하는 가치, 고객 등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 개발

* (예시) 연령이 높은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선사를 대상으로는 하이킹 등 액티비티보다 치유에 중점을 둔 상품 개발 및 맞춤형 홍보자료 제공 등

- (인센티브) 환영행사, 무료셔틀 제공 등 기존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관광상품 등과 관련된 인센티브 마련 검토(지자체 등)

* (예시) 지역 축제 등 행사 우선 입장, 입장권 할인 등

② 친환경을 중심으로 한 기항지 인프라 확충

- (친환경 항만) 크루즈 선사들의 친환경화에 대응, LNG 병커링 및 육상전원공급장치(AMP) 등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

- (LNG) 단기적으로 LNG 병커링 전용선 건조, 중장기적으로 주요 항만에 육상 LNG 병커링 터미널 구축(제5차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 ▶ (공급능력) '30년까지 140만톤 공급 가능한 LNG 병커링 인프라 구축

* ('20) 35만톤 → ('25) 70만톤 → ('30) 140만톤

- ▶ (민간투자 유치) LNG 추진선박 확대를 통한 LNG 병커링 수요창출 등 투자 경제성 확보 지원



- (전기) 주요 항만(부산, 울산, 인천 등)에 항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지속 확대(제5차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 (터미널 시설) 2030년까지 크루즈 접안부두 10선석, 국제여객터미널 2개소 확충 추진(제4차 항만기본계획)

- 터미널 내에 관광객 편의시설, 승무원 휴식시설 등을 확충하여 터미널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③ 적극적인 국내 기항지 세일즈

- (포트세일즈) 관계기관 합동 중·단기 포트세일즈 로드맵을 마련하여 포트세일즈의 방향성 및 효율성 제고('23~)
 - 주변국(중국, 일본, 대만)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Fly & Cruise 활성화를 위한 신규 지역 대상 적극적 포트세일즈 진행
 - 권역별 해외 거점조직* 기반으로 산업동향 조사 및 기항지 홍보 등 상시 크루즈 유치 활동 진행
- * 한국관광공사 크루즈 거점지사(베이징, 상하이, 타이베이, 도쿄, 뉴욕, 프랑크푸르트) 등
- (팸투어) 주요 선사·여행사 대상 팸투어를 진행, 선사 요구사항 파악 및 수요자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추진(문체부, 지자체 등)
- (국제행사) 국제적 크루즈 네트워크 구축 및 기항지 홍보를 통한 크루즈선 유치를 위해 꾸준한 국제행사* 개최 추진
- * 국제크루즈포럼(해수부), 코리아크루즈 트래블마트(문체부) 등
- (정보관리) 선사·여행사·매체(전문지 등) 등 주요 크루즈 관련 사이트 지속 모니터링 및 잘못된 국내 기항지 정보 수정(지자체 등)
- * 7개 선사 웹사이트 및 6개 관련 웹사이트에서 49개 오류 파악(제주특별자치도)



【 관계기관 공동 현지 포트세일즈 】



【 메타버스 활용 온라인 포트세일즈 】

- ◆ 국민들에게 다양한 크루즈 경험을 제공하고, 국적선사 출범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국내 크루즈 저변을 확대

1. 크루즈상품 및 사업모델 개발

□ 추진배경

- 국내 크루즈 수요 부족은 국적선사 출범 및 외국적 크루즈선 모항 유치 곤란 등 산업 활성화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아시아 주요국가별 크루즈 승객 수 >

(단위 : 천명)

구분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인도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2018년	2,359	391	373	221	250	266	150	72	44
2019년	1,919	389	325	313	191	296	121	62	49

* (출처) CLIA (2021)

- 연안크루즈, 테마크루즈 등 다양한 크루즈상품 및 사업모델 개발을 통한 국내 크루즈 저변 확대 필요

□ 추진방안

① 연안크루즈 활성화

- 지자체, 선사·여행사 등 연합으로 연안크루즈 상품*(일정, 기항지 등)을 개발하고, 사업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진행('24~)

* (예시) 지역축제 및 행사 연계 테마형 연안크루즈, 한반도 일주(인천-여수-제주-부산-속초 등) 연안크루즈 등

- 시범사업을 위한 선박확보 비용* 및 제도적 문제** 등 해결을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사업자 참여 사업모델 개발

* 운항비용(국적선사), 용선비용(차터크루즈) 등 / ** 차터 외국적 크루즈선의 카보타지 해결 등

② 다양한 테마크루즈 상품 마련

- 관계부처, 지자체, 선사·여행사 등 협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크루즈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테마크루즈 상품 개발 지원**(~'25)

* (예시) 보령 머드축제와 연계한 선상클럽, K-pop 선상 콘서트 및 팬미팅, K-food 체험 크루즈, 신혼여행 크루즈, MICE 특화 크루즈 등

- 디즈니랜드·마블 등을 테마로 한 디즈니크루즈*, 크루즈를 배경으로 한 축제 산업인 It's the Ship** 등 이미 성공한 테마크루즈 유치 추진

* 향후 인수 예정인 2척의 신조 크루즈선 중 1척을 아시아 시장에 투입 검토 중

** 여행/레저 산업과 축제/공연 산업이 크루즈를 무대로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축제 산업으로, 미주·오세아니아·일본·싱가포르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



【선상 디즈니랜드】



【IT'S THE SHIP】

③ 크루즈선 용선 지원

- (인센티브) 국내 기항지를 모항으로 운영하는 차터 크루즈에 대한 선석 우선배정, 용선사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검토(지자체 등)

* 크루즈 선사에는 기항 유도를 위한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항 운영을 유도하는 용선사에는 지원이 부족한 상황

- (운영모델) 용선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 보조(연안 크루즈 시범사업), 여행사 간 연합용선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개발(~'25)

2. 국적 크루즈선사 출범 지원

□ 추진배경

- 국적선사 부재는 코로나19 등 외생변수로 인한 국가간 크루즈 교류 곤란 시 산업 기반 유지 및 정책 추진에 있어 큰 약점으로 작용
 - * 코로나19 상황에서 각국의 국적선사는 연안크루즈 운영 등을 통한 산업 기반 및 저변 유지와 방역지침 마련 등 극복 정책 추진의 기반 역할
-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며 국내 크루즈산업 육성기반 마련과 크루즈 저변 확대 등을 위한 국적선사 출범 필요성 증대

□ 추진방안

① 선박금융 활성화

- (정책금융) 투자 위험도가 높아 민간투자자가 꺼려하는 후순위 금융에 대해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적극 투자 보증지원 등 추진(장기)
 - 또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크루즈산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현지 포트세일즈, 국제크루즈포럼 등 주요 행사에 참여 유도('23~)
 - * 선박 발주·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리스사 설립('26) 추진 중
- (민간 선박펀드) 선박투자회사 배당수익에 대한 세제혜택(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부여 등 투자자 수익성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검토(장기)

② 선원 수급체계 구축

- (외국인선원) 국적 크루즈선 승선 외국인 선박직원을 위한 체류 자격* 검토(법무부) 및 외국인선원 TO 추가 확보** 지원
 - * 현행 「출입국 관리법」 상 외국인 부원은 선원취업(E-10-3)으로 체류가 가능하나 외국인 선박직원(해기사)는 체류 자격 불명확
 - ** 선원노조연합단체와 선주단체가 합의한 크루즈 선원 TO는 부원 100명('22.9 현재)
- (국적선원) 국적선사와 선원(해기사, 승무원 등) 양성·교육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적 크루즈선원 수급체계 구축
 - * (예시) 국적선사-해양대·해사고-승무원 양성기관 간 실습 및 고용 협약 등

③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

- (협력체계) 국적선사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 정기적으로 제도개선 등 지원사항 발굴 및 홍보 등 협업사업 추진

* (구성) 해수부, 문체부, 관세청, 법무부 + 희망 지자체 등

- (규제혁신) 국적 크루즈선 운영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 (예시) 연안을 운항하는 크루즈선은 내항여객선 선령기준 적용받지 않도록 해석 명확화 등

- (인센티브) 국적선사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확대*, 선석 우선배정, 도선료 등 각종 비용 지원 확대 등 추진(지자체 등)

* (현행) 선사 국적과 상관없이 30% 감면

3. 적극적인 관심유발 및 이미지제고

□ 추진배경

- 부족한 국내 크루즈 수요는 외국적 크루즈선 기항 확대, 국적 선사 출범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약점으로 작용
 - 크루즈 체험단, 매체 홍보 등 국내 크루즈 수요 증대를 위해 추진 중인 홍보사업의 강화 필요

□ 추진방안

① 크루즈 체험단 운영 강화

- (구성) 일반국민 대상뿐만 아니라 여행업계 종사자*,공익을 위한 봉사자** 등 목적성을 갖춘 체험단 구성·운영

* 모항 크루즈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크루즈와 연계한 다양한 여행상품 출시 기대

** 코로나19 극복 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재정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

- (홍보) 기사단 취재 지원, 대학생 기사단(海리포터)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체험단 홍보 추진('23~)

②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강화

- (방역콘텐츠)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크루즈선 관련 방역대책 등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배포
 - * 공중파, 케이블TV 생활정보·예능프로그램 활용한 방역 대책 홍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크루즈선 승선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 (소식지) 업계 동향, 국가별 크루즈 정책, 주요 통계, 크루즈 상식 등을 포함한 크루즈 소식지 정기(분기별) 발간('24~)
 - 관계기관, 업계 배포뿐만 아니라 우리부 홈페이지, SNS, 온라인 홍보관 게시 등을 통해 크루즈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 제고
- (메타버스) 미래세대 선호하는 메타버스(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등) 플랫폼을 활용한 (가칭)'나만의 크루즈선' 공모전 개최 추진('25~)
 - *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장관상과 부상(상금, 크루즈 탑승권 등) 제공

③ 계기별 집중 홍보 추진

- 관계기관(해수부·문체부·지자체 등) 협의를 통하여 지역축제·행사, 크루즈선 입항 스케줄 등을 고려한 연간 홍보계획 수립
 - 지역축제·행사와 크루즈선 기항 일정이 겹칠 경우 병행 홍보하여 축제·행사의 위상 및 크루즈선의 인지도 제고
 - * 지역의 축제·행사와 크루즈선 기항시기를 매칭시켜 노선 정규화 등 추진
 - 특별한 기항 일정*을 유치 추진하고 방송·SNS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지속적·대대적 홍보로 크루즈에 대한 친밀도 제고
 - * (예시) 한 기항지에 모이는 것이 화제가 되는 Cunard社의 크루즈선 'Three Queens' (퀸 빅토리아, 퀸 메리2, 퀸 엘리자베스)의 국내 동시 기항을 유치하고 집중 홍보 등
 - 국제크루즈포럼(해수부), 코리아 크루즈 트래블 마트(문체부) 등 크루즈 관련 국제행사 시 방송·기획기사·기고·SNS 등을 통한 집중 홍보 추진

- ◆ 크루즈 연관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협력 강화를 통해 주변국과 함께 하는 크루즈산업 육성 도모

1. 크루즈 연관산업 활성화

□ 추진배경

- 크루즈산업은 해운, 항만, 관광뿐만 아니라 선용품, 교육 등 다양한 산업과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산업
 - 연관산업 활성화를 통한 크루즈산업 발전 및 부가가치 창출 필요

□ 추진방안

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용품공급업 육성

- 플랫폼 고도화, 인증제도 도입 및 마케팅 지원 등 선용품공급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크루즈 선용품 공급체계 강화(~24)
 - (전자상거래) 국내 선용품 전용 코드체계를 개발하여 선용품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동하고 플랫폼 기능 고도화* 추진
 - * (현행) 선용품 업체간 거래 지원 → (개선) 선사·선박관리사업자 등 수요자도 주문 가능
 - (인증제도) 우수 선용품업체와 선용품에 대한 인증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 추진
 - * 국제표준(ISO, OHSAS 등) 인증, 국제선급 형식 승인 및 통관 간소화 공인 등
 - (마케팅) 선사와의 원활한 파트너십 구축 및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위해 선용품공급업 마케팅 지원사업 발굴
 - * 거래정보 디지털 전환 지원, 국내 선용품 코드체계에 기반한 전자카탈로그 제작 등
- 영세 선용품 공급업체 간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을 통해 협상력 제고 및 크루즈 선용품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구축

② 양성인력 다변화 등 전문인력 양성체계 고도화

- (과정확대) 기존 승무원뿐만 아니라 선사 마케팅, 일정, 물품 관리 등 관리직 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크루즈 관리자 양성 추진

* 3차 전문인력 양성사업('23~)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 추진

- 크루즈 관광 가이드, 크루즈 여행 플래너 등 연관 산업 인력 양성 과정 운영 등 인력양성 사업 확대(지자체)

- (사후관리) 교육생 사후 추적*을 통한 고용 여건 개선, 교육성과 측정·개선*을 통해 인력양성 사업 만족도 향상

* 양성기관이 주기적으로 수료생에 대해 교육만족도 조사 및 취업실태·고용여건 조사

** 양성기관 지정 시 평가 기준에 교육성과 지표 추가

2.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 추진배경

- 대부분의 크루즈 상품이 국가간 이동을 전제하고 있는 만큼, 산업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글로벌 협력체계가 필수

- 신규노선 개발*,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등 산업 육성을 위해 강력한 국가간 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 필요

* (예시) 양국 민관 협의를 통한 한국-대만 노선 개설('17)

□ 추진방안

① 국가간 협력체계 강화

- (국제협약체) 아시아지역 크루즈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아시아크루즈 협약체(ACC) 활동 강화* 및 회원 가입 연장(현재 : '24.6월까지) 검토

* ACC 명의로 크루즈 박람회 공동 참여, ACC 정기회의 지속 참여 등

- ACLN*, ACC 등 국제협의체의 회의를 유치하여 입지를 강화하고 극동(러시아), 동남아 국가와 추가적 채널 구축

* 아시아 크루즈 관련 정부기관 및 항만관계자, 크루즈 연구기관, 관련기업 등 9개국 72개 회원기관으로 구성된 아시아 크루즈 네트워크 조직

②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국제박람회) 권역별(미국, 유럽, 아시아) 대형 크루즈 박람회*에 지속 참여하여 크루즈 분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Seatrade Cruise Global(마이애미)·Europe(함부르크, 마드리드)·Asia(상하이) 등

- 업계·타국 등과의 미팅을 통한 업계 동향, 선사 정보 파악 및 관계기관 합동* 홍보부스 운영 등 크루즈선 국내 유치 적극 추진

* 한국관광공사, 각 기항지 지자체 등

- (선사미팅) 중앙정부 차원의 권역별(미주, 유럽, 동남아) 선사미팅을 통해 크루즈산업 육성 정책 정보 제공 및 협력 사항 발굴

- 타 권역 관계자 초청 및 팸투어를 통하여 해외 우수사례 청취, 기항지 개선사항 발굴 등 크루즈선 유치 기반 정비

* (예시) 유럽 Fly & Cruise 상품 운항선사 관계자 초청·팸투어를 통해 항공-항만 연계와 관련한 해외 우수사례 및 모항 및 기항 운영을 위한 구체적 요구사항 청취 등



【 국제박람회(Seatrade Cruise Global) 】



【 선사미팅(TUI Cruises) 】

3. 산업 지원체계 정비

□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업계 동향, 선사별 특성 등 크루즈산업에 대한 체계적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며, 공식적인 통계도 부재
-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통한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 정보 및 통계 등의 체계적인 구축 필요

□ 추진방안

① 관계기관 정책 협의체 구축

- 중앙(해수부) - 지자체(기항지) - 관련 기관 간 크루즈 정책 통합 추진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일원화된 소통 채널로서 정책 협의체 운영
- 연안크루즈 활성화 등 주요 과제, 포트세일즈·홍보 등 공동 추진



② 크루즈산업 담당인력 확보

- 산업 DB 구축 및 전망, 정책 자문 등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 내에 크루즈산업 관련 정보를 관장하는 인력 지정 검토

* (예시)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 국내외 산업 동향 파악·예측 및 정책방향 제시, 기항 유치를 위한 선사별 맞춤형 전략 컨설팅 등 정보 기반 업무 수행

③ 크루즈산업 공식통계 구축

- 크루즈 입·출항 현황, 승객 정보, 모항지·기항지 현황 및 선용품 규모 등 크루즈 산업과 관련한 공식 통계 마련
- 통계 작성을 위한 세부 기준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후 크루즈산업 통계에 대하여 통계청의 국가통계 승인 추진

□ 추진주체

구분	추진과제	담당
1. 찾아오는 크루즈		
1-1. 크루즈 운항 정상화 후속대책	원활한 운항재개를 위한 인프라 정비	해수부, 법무부, 질병청, 관세청, 지자체 등
	출입국·검역 등 편의 제고	해수부, 법무부, 질병청, 관세청, 지자체 등
1-2. 크루즈선 기항 활성화	동북아 지역 기반 크루즈선 운항 활성화	해수부, 문체부, 지자체
	새로운 기항 크루즈선 유치	해수부, 문체부, 지자체 등
1-3. 기항지 매력 강화	기항지 관광상품 개발 고도화	문체부, 지자체
	친환경을 중심으로 한 기항지 인프라 확충	해수부, 지자체
	적극적인 국내 기항지 세일즈	해수부, 문체부, 지자체 등
2. 즐겨타는 크루즈		
2-1. 크루즈상품 및 사업모델 개발	연안크루즈 활성화	해수부, 지자체
	다양한 테마크루즈 상품 마련	해수부, 문체부, 지자체
	크루즈선 용선 지원	해수부, 지자체
2-2. 국적 크루즈선사 출범 지원	선박금융 활성화	해수부
	선원 수급체계 구축	해수부, 법무부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	해수부, 문체부, 법무부 등
2-3. 적극적인 관심유발 및 이미지제고	크루즈 체험단 운영 강화	해수부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강화	해수부, 문체부
	홍보계획 수립 및 계기별 홍보	해수부, 문체부, 지자체
2. 함께하는 크루즈		
3-1. 크루즈 연관산업 활성화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용품공급업 육성	해수부, 지자체
	양성인력 다변화 등 전문인력 양성체계 고도화	해수부
3-2.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국가간 협력체계 강화	해수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해수부, 문체부, 지자체 등
3-3. 산업 지원체계 고도화	관계기관 정책 협의체 구축	해수부, 지자체 등
	크루즈산업 담당인력 확보	해수부
	크루즈산업 공식통계 구축	해수부

□ 세부 추진일정 (잠정)

구분	추진과제 및 세부계획	'23	'24	'25	'26	'27
1. 찾아오는 크루즈						
1-1. 크루즈 운항 정상화 후속대책	원활한 운항재개를 위한 인프라 정비					
	크루즈 인프라 및 관광 인프라 정비					
	출입국·검역 등 편의 제고					
	출입국, 검역 관련 프로그램 기능 개선					
1-2. 크루즈선 기항 활성화	동북아 지역 기반 크루즈선 운항 활성화					
	환동해권 크루즈 상설운항 위한 협업체 구축					
	환황해권 크루즈선 국내 기항 확대 추진					
	새로운 기항 크루즈선 유치					
	Fly & Cruise 유치체계 구축					
	북극항로와 우리나라 기항·모항 연계					
1-3. 기항지 매력 강화	기항지 관광상품 개발 고도화					
	크루즈 관광 맞춤형 콘텐츠 발굴					
	관광상품 관련 인센티브 검토					
	친환경을 중심으로 한 기항지 인프라 구축					
	LNG 벙커링, AMP 등 친환경 항만 구축					
	부두 및 터미널 시설 확충					
	적극적인 국내 기항지 세일즈					
	포트세일즈, 팸투어, 국제행사 등 추진					
	국내 기항지 정보에 대한 오류 수정					
2. 즐겨타는 크루즈						
2-1. 크루즈상품 및 사업모델 개발	연안크루즈 활성화					
	연안크루즈 상품 및 사업모델 개발					
	연안크루즈 시범사업 추진					
	다양한 테마크루즈 상품 마련					
	테마크루즈 상품 개발 지원					
	성공한 테마크루즈 유치 추진					
	크루즈선 용선 지원					
	모항 용선 크루즈 인센티브 검토					
	용선 크루즈 운영모델 개발					

구분	추진과제 및 세부계획	'23	'24	'25	'26	'27
2-2. 국적 크루즈선사 출범 지원	선박금융 활성화					
	정책금융 지원 추진					
	민간 선박펀드 인센티브 검토					
	선원 수급체계 구축					
	외국인선원 체류자격 검토 및 TO 확보 지원					
	국적선원 수급체계 구축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					
	범부처 협의체 구성					
	인센티브 확대 추진					
2-3. 적극적인 관심유발 및 이미지제고	크루즈 체험단 운영 강화					
	체험단 구성체계 개편 및 홍보 강화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강화					
	방역 등 관련 홍보콘텐츠 제작					
	크루즈 소식지 간행					
	메타버스를 활용한 공모전 개최					
	홍보계획 수립 및 계기별 홍보					
	홍보계획 수립 및 계기별 홍보					
3. 함께하는 크루즈						
3-1. 크루즈 연관산업 활성화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용품공급업 육성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능 고도화					
	인증제도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					
	양성인력 다변화 등 전문인력 양성체계 고도화					
	크루즈 인력양성 사업 확대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사업 만족도 향상					
3-2.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국가간 협력체계 강화					
	국제협의체 활동 강화 및 회의 유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제 크루즈 행사 참여 및 선사미팅					
3-3. 산업 지원체계 고도화	관계기관 정책 협의체 구축					
	정책 협의체 구축 및 운영					
	크루즈산업 담당인력 확보					
	크루즈산업 정보 관장 인력 지정					
	크루즈산업 공식통계 구축					
	크루즈 통계 국가 승인 통계화					